

# TRADE BRIEF

전략시장연구실  
박 승 혁 수석연구원 02-6000-5178, shpark0929@kita.net



[iit.kita.net](http://iit.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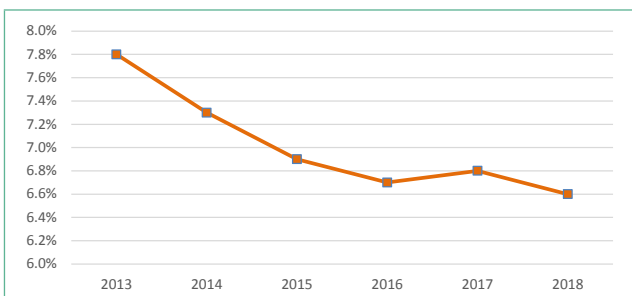
## 최근 중국 경제동향과 주요 이슈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2019년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6%를 기록, 목표치(6.5%)는 상회했으나 28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고, 수출입 규모는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무역수지가 크게 축소됐다. 중국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와 OECD 경기선행지수 또한 향후 경기위축 국면을 예고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 등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 소비촉진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소비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채규모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크게 확대하기 보다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각 지역별 소비 활성화 추진정책의 세부사항들을 파악, 새로운 소비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01. 중국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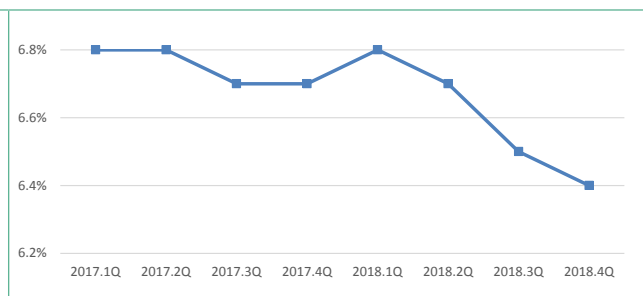
- 최근 발표된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따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GDP)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분기별로 성장률 둔화세가 심화 (6.8%(1Q) → 6.7%(2Q) → 6.5%(3Q) → 6.4%(4Q))

연도별 GDP 성장률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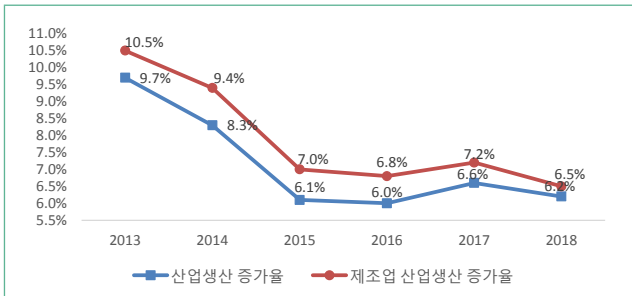
분기별 GDP 성장률(2017-20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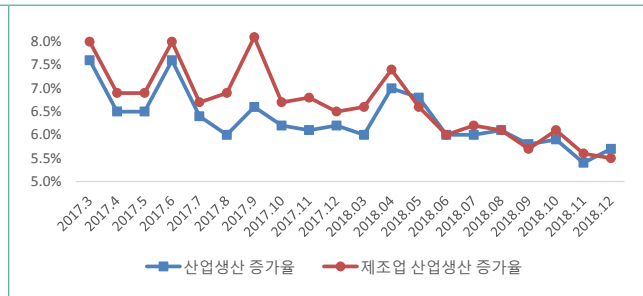
- (산업생산) 2018년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5월부터 급격히 하락, 2017년 대비 0.4%p 감소한 6.2%를 나타냈고 전 산업 생산둔화에 비해 제조업 산업생산 둔화세가 두드러짐

연도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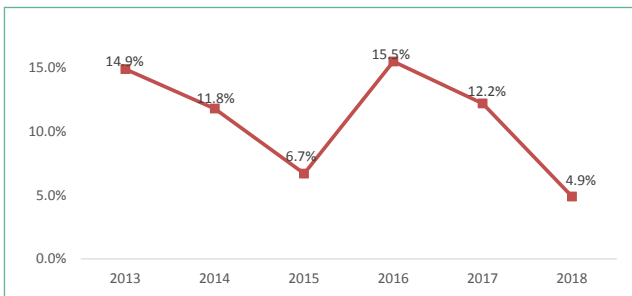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2017-20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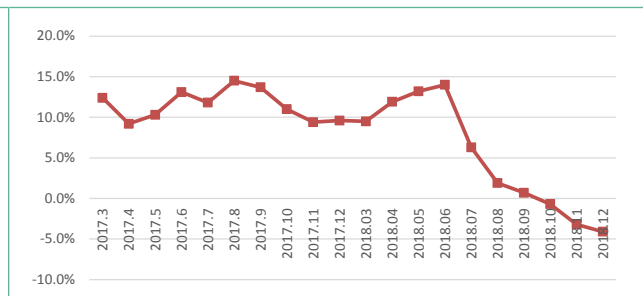
- 특히 자동차 부문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8년 6월 이후 급격히 감소, 10월부터는 201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연도별 자동차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CEIC, 중국자동차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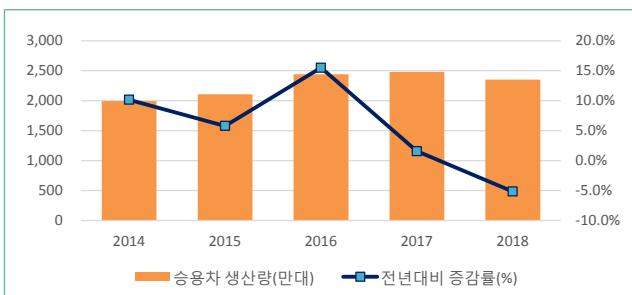
월별 자동차 산업생산 증감률(2017-20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CEIC, 중국자동차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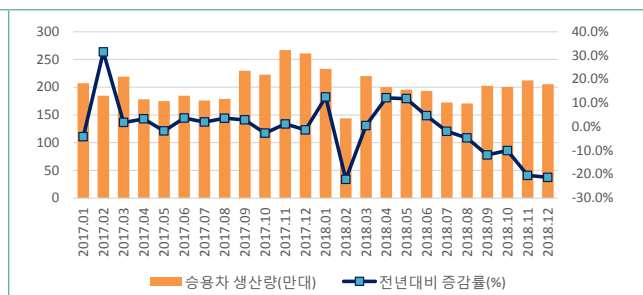
- 이로 인해 2018년 전체 자동차 생산의 대부분(84.6%)을 차지하는 승용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2,353만대를 기록함

연도별 승용차 생산량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월별 승용차 생산량(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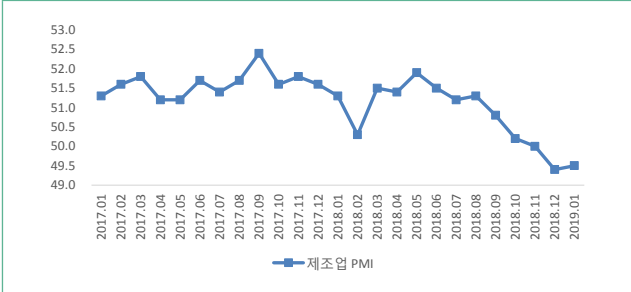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PMI<sup>1)</sup>) 중국 제조업 PMI는 2018년 12월 49.4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1월에도 49.5를 기록, 경기위축 지속

1) PMI(Purchase Management Index): 기업 경기 체감지표로 PMI가 50 이상일 경우 경기확장, 50 이하일 경우 경기위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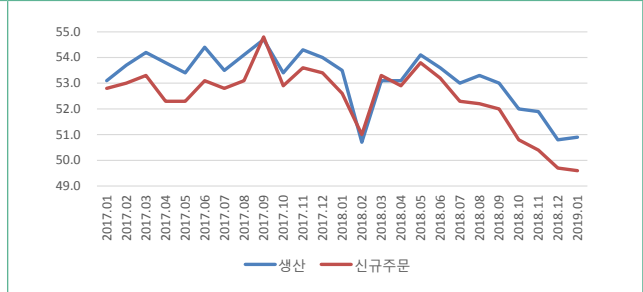
- 주요 PMI 구성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신규주문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 2018년 12월부터 2개월 연속 50미만을 나타냄

제조업 PMI(2017-20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주요 구성 지표(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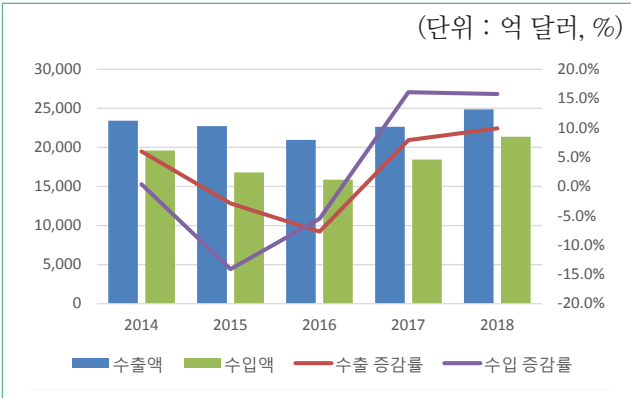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무역) 2018년 중국의 수출입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무역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12월 수출입 실적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수출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2조 4,874억 달러, 수입은 15.8% 증가한 2조 1,356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무역흑자는 3,518억 달러로 2013년 이후 최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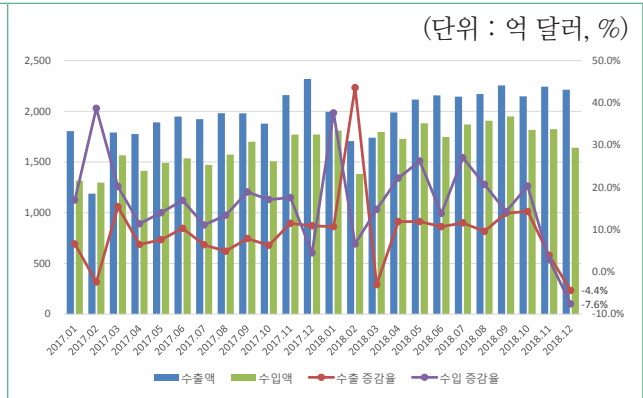
- 지난해 3월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입은 11월 증가세가 크게 둔화, 12월에는 수출과 수입 증감률이 각각 -4.4%, -7.6% 으로 급감

연도별 수출입 실적



자료 : 중국 해관총서

월별 수출입 실적(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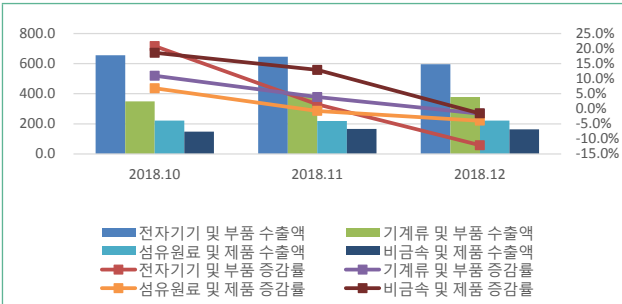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총서

- 2018년 12월 수출입 감소의 원인은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전자기기 및 부품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12.1%)으로 감소했고, 기계류, 섬유 등 기타 주요 품목의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

- 수입의 경우 주요 수입품인 전자기기 및 부품, 기계류 및 부품과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 감소,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등 광산품의 수입 증가율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2018.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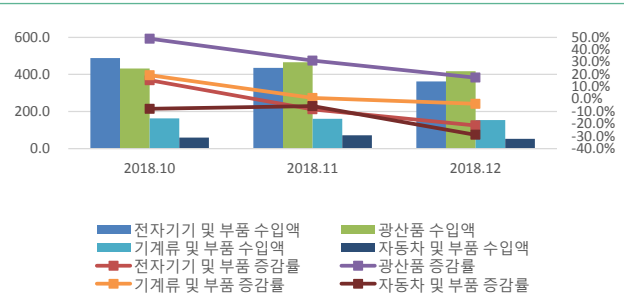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품목	2018.10	2018.11	2018.12
전자기기 및 부품	655 (20.8)	646 (1.5)	596 (-12.1)
기계류 및 부품	349 (11.1)	387 (3.9)	378 (-1.6)
섬유원료 및 제품	222 (6.8)	220 (-0.7)	222 (-4.0)
비금속 및 제품	149 (18.6)	166 (12.9)	164 (-1.5)

자료 : 중국 해관총서

###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2018.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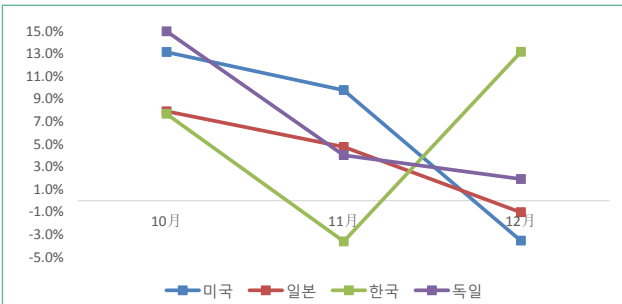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품목	2018.10	2018.11	2018.12
전자기기 및 부품	489 (-15.3)	435 (-8.2)	362 (-21.3)
광 산 품	432 (-48.9)	466 (-31.2)	417 (-17.4)
기계류 및 부품	163 (-19.4)	161 (-1.0)	154 (-3.8)
자동차 및 부품	60 (-7.8)	72 (-5.6)	52 (-28.9)

자료 : 중국 해관총서

- 국가별로 보면 수출은 최대 수출국인 대미수출이 둔화됐고, 수입의 경우 한국, 일본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 특히 12월 대미수입은 주요국 중 가장 큰 폭(-35.8%)으로 감소함

### 주요 국가별 수출 증감률(2018.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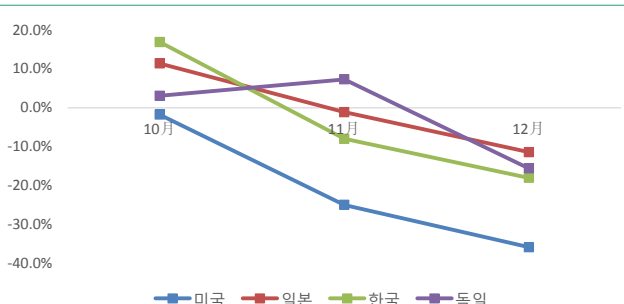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국 가	2018.10	2018.11	2018.12
미 국	427 (-13.2)	462 (-9.8)	403 (-3.5)
일 본	126 (-7.9)	140 (-4.8)	128 (-1.0)
한 국	90 (-7.7)	96 (-3.6)	106 (-13.2)
독 일	68 (-15.0)	65 (-4.0)	74 (-1.9)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중국 해관총서, CEIC

### 주요 국가별 수입 증감률(2018.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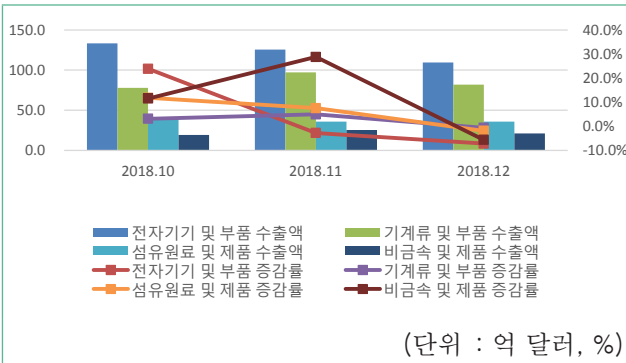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국 가	2018.10	2018.11	2018.12
미 국	109 (-1.8)	107 (-25.0)	104 (-35.8)
일 본	153 (-11.4)	153 (-1.1)	140 (-11.4)
한 국	179 (-16.3)	164 (-8.4)	141 (-18.0)
독 일	83 (-3.1)	95 (-7.3)	77 (-15.6)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중국 해관총서, CEIC

- 대미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기기 및 부품(-7.2%)과 기계류 및 부품(-0.6%)의 2018년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대미수입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58.1%), 대두 등 식물성 생산품(-91.0%), 광산품(-96.0%), 쇠고기를 포함한 동물성 생산품(-65.5%) 등의 수입 감소가 심화

주요 품목별 대미수출 추이(2018.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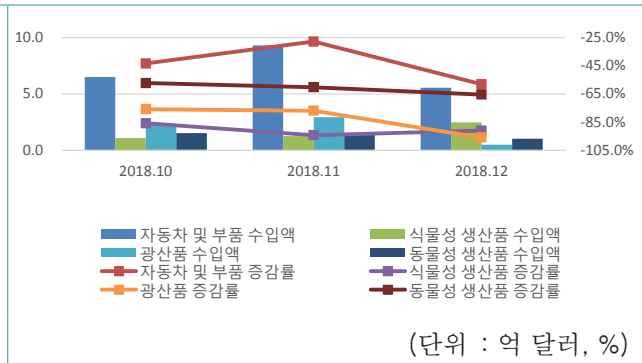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품목	10월	11월	12월
전자기기 및 부품	133 (-23.9)	125 (-2.8)	109 (-7.2)
기계류 및 부품	78 (-3.1)	97 (-4.9)	82 (-0.6)
섬유원료 및 제품	39 (-11.8)	36 (-7.5)	36 (-1.9)
비금속 및 제품	19 (-11.5)	25 (-28.8)	21 (-5.6)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중국 해관총서, CEIC

주요 품목별 대미수입 추이(2018.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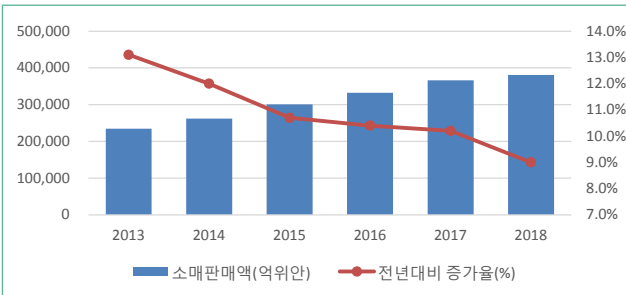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품목	10월	11월	12월
자동차 및 부품	6.5 (-43.4)	9.3 (-27.8)	5.5 (-58.1)
식물성 생산품	1.1 (-85.8)	1.2 (-94.3)	2.5 (-91.0)
광 산 품	2.3 (-75.8)	2.9 (-76.9)	0.5 (-96.0)
동물성 생산품	1.5 (-57.3)	1.3 (-60.2)	1.0 (-65.5)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중국 해관총서,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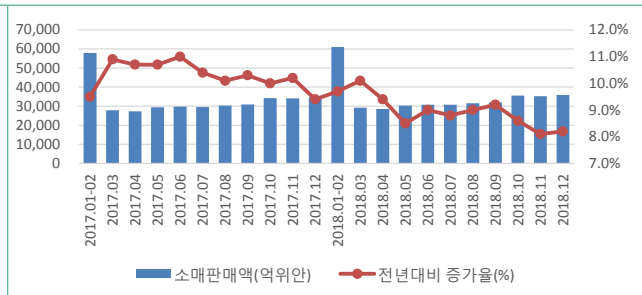
- (소비) 한편 내수시장은 소매판매와 1인당 소비지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시장이 위축
  - 2018년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p 하락한 9.0% 증가에 그침
  -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오던 월별 소매판매는 2018년 4월부터 한자리대로 떨어지고 10월부터는 8%대로 하락

연도별 소매판매 증감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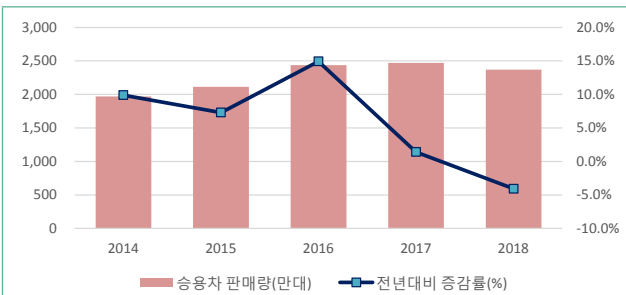
월별 소매판매 증감(2017-20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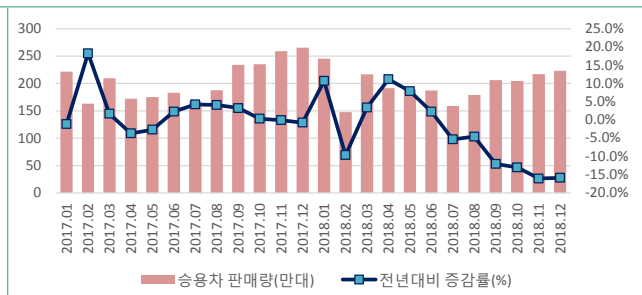
- 주요 소비품목인 자동차 판매량과 스마트폰 출하량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소비시장 위축을 주도, 2018년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2,353만대를 기록

연도별 승용차 판매량



자료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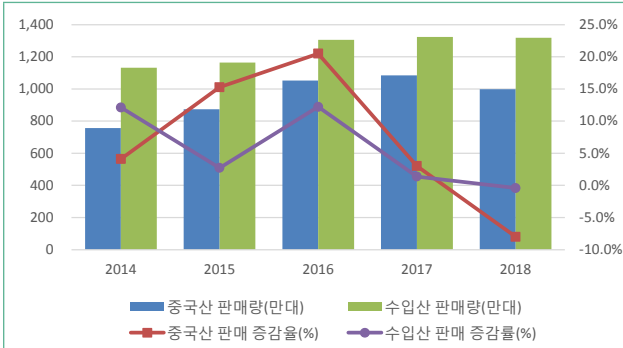
월별 승용차 판매량(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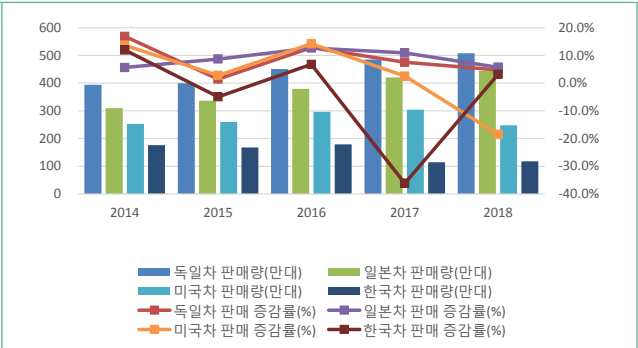
자료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 그 중 중국산 승용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8.0% 감소했고, 수입차 판매는 전체적으로 소폭 (-0.4%)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18.5%) 감소함

연도별 국산/수입 승용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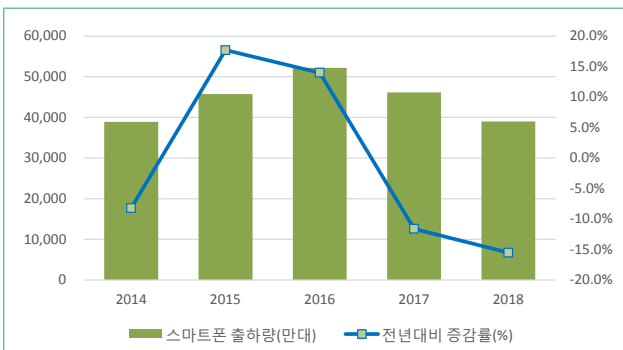
수입국별 승용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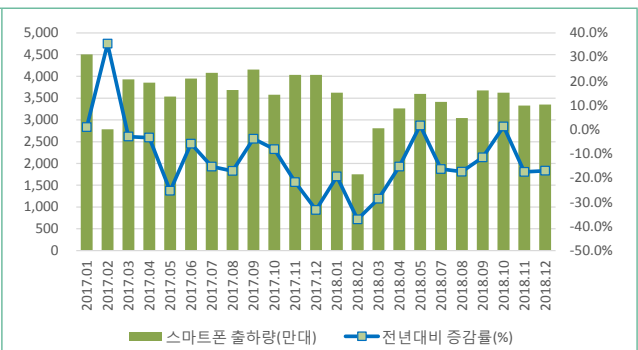
주: 수입 승용차 합계는 독일, 일본, 미국, 한국산 합계  
 자료: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 2018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15.5%) 3억 8,993만대를 기록, 월별로 보면 주요 신제품 출시 시즌인 5월과 10월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연도별 스마트폰 출하량



월별 스마트폰 출하량(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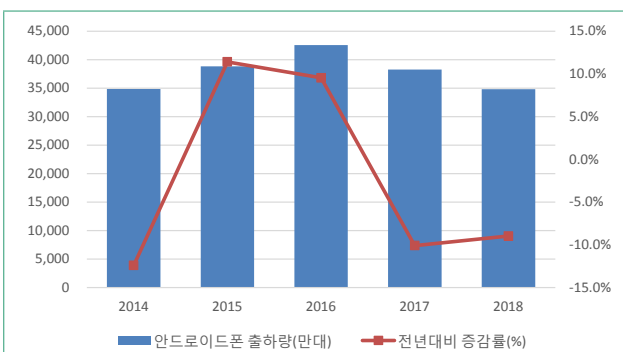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공신부(공업 및 정보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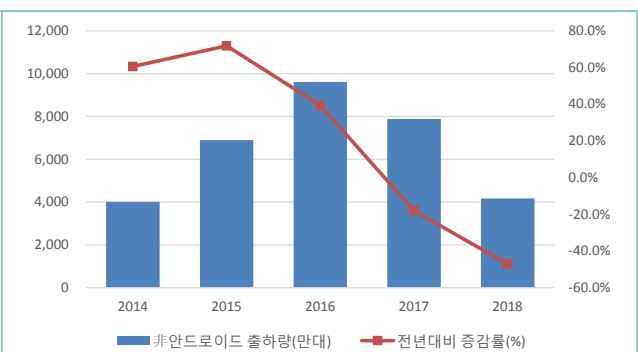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공신부(공업 및 정보화부)

- 그 중 안드로이드(Android)폰의 2018년 출하량은 전년 대비 9.0% 감소했고, 애플사의 아이폰이 대부분인 비안드로이드폰 출하량은 급격하게(-47.1%) 축소됨

안드로이드폰 출하량



비안드로이드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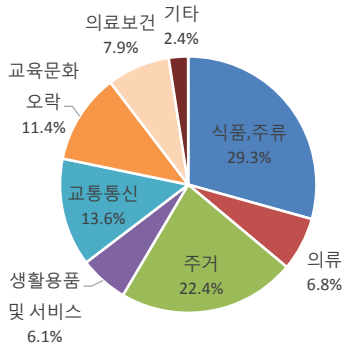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공신부(공업 및 정보화부)

자료: 중국 공신부(공업 및 정보화부)

- 한편 1인당 소비지출은 8.4% 증가한 19,853위안을 기록, 특히 의료 보건 분야의 지출이 큰 폭(16.1%)으로 늘어나며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음

1인당 소비지출 구조(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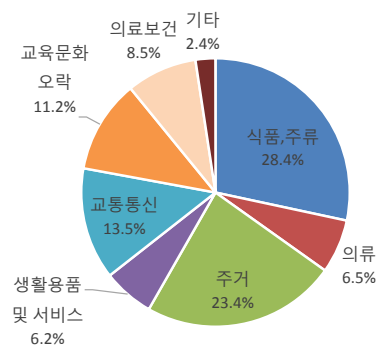


(단위 : 위안, %)

구분	금액	증감률	비중
식품·주류	5,374	4.3	29.3
의류	1,238	2.9	6.8
주거	4,107	9.6	22.4
생활용품 및 서비스	1,121	7.4	6.1
교통·통신	2,499	6.9	13.6
교육·문화·오락	2,086	8.9	11.4
의료·보건	1,451	11	7.9
기타	447	10.1	2.4
합계	18,323	7.1	100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인당 소비지출 구조(2018)



(단위 :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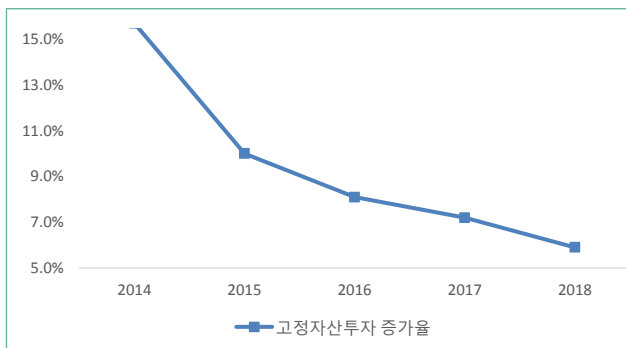
구분	금액	증감률	비중
식품·주류	5,631	4.8	28.4
의류	1,289	4.1	6.5
주거	4,647	13.1	23.4
생활용품 및 서비스	1,223	9.1	6.2
교통·통신	2,675	7	13.5
교육·문화·오락	2,226	6.7	11.2
의료·보건	1,685	16.1	8.5
기타	477	6.7	2.4
합계	19,853	8.4	100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투자) 2018년 고정자산 투자와 FDI 유치는 모두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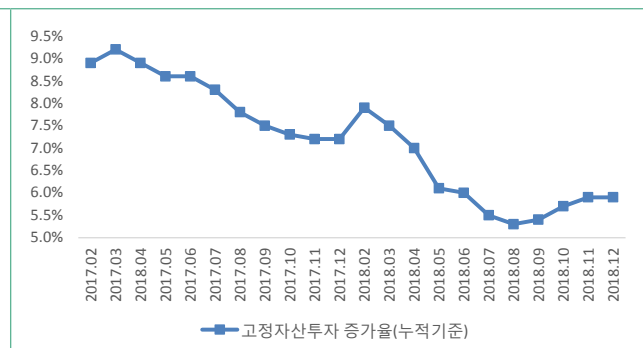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9%를 기록, 2017년 대비 1.3%p 감소

연도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월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017-20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업종별로 보면 문화 체육 오락산업(21.2%) 투자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 축산업(9.5%), 제조업(9.5%) 투자도 증가, 반면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관련 투자는 감소(-6.7%)를 보임

## 업종별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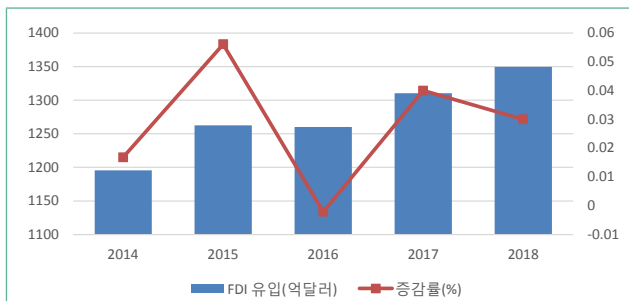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3.5	8.1	4.2	4.8	9.5
농림축산업	31.3	30.8	19.5	9.1	12.3
교통, 운수업	18.6	14.3	9.5	14.8	3.9
교육업	24.0	15.2	20.7	20.2	7.2
문화 체육 오락산업	18.9	8.9	16.4	12.9	21.2
에너지 생산 및 공급	17.1	16.6	11.3	0.8	-6.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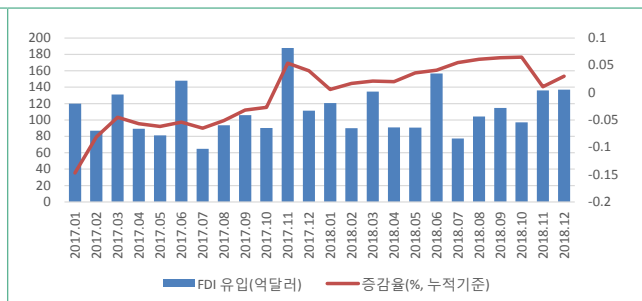
- FDI 유입 규모는 2018년 기준 1,34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소폭 둔화

연도별 FDI 유치 동향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월별 FDI 유치 동향(2017-20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 국가별로 보면 주요 투자국인 한국(26.6%), 일본(16.5%), 미국(10.2%) 등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증가

## 국가별 대중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39.7	(29.8)	40.4	(1.8)	47.5	(17.6)	36.9	(-22.3)	46.7	(26.6)
일본	43.3	(-38.7)	32.1	(-25.9)	31.1	(-3.1)	32.7	(5.1)	38.1	(16.5)
미국	26.7	(-20.4)	25.9	(-3.0)	38.3	(47.9)	31.3	(-18.3)	34.5	(10.2)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 이렇듯 각종 경제지표의 성장둔화 우려로 인해 세계은행(WB)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인 6.2% 내외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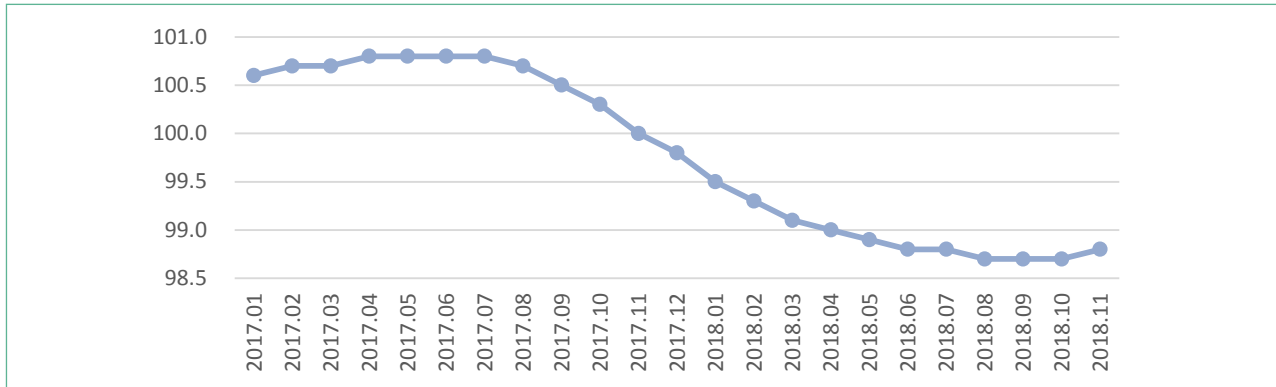
-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6.2%, ADB(아시아개발은행)은 6.4%, OECD는 6.3%로 전망, 2018년 실적인 6.6%보다 낮은 수준
-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2019년 중국경제가 6.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장둔화를 예상



- 한편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sup>2)</sup>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위축이 가시화

- 2017년 8월부터 CLI가 지속 하락, 2017년 12월에는 100미만으로 떨어지며 경기위축 전망 국면에 돌입, 이후 하락을 지속하다 2018년 11월에도 98.8을 기록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최근 중국의 경기선행지수(2017-2018)



자료 : OECD

## 02. 정책적 대응

- ◎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개최될 예정인 양회에서도 관련 정책방향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0.5%p씩 인하, 이에 따라 1조 5,000억 위안의 자금이 풀릴 것이며,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유동성은 8,000억 위안으로 전망
    -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2011년 12월부터 지속 인하해 왔고, 대형 금융기관과 중소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2018년에만 3차례 인하

중국 지급 준비율 인하 추이

(단위 : %)

구분	2015.10.24	2016.03.01	2018.04.25	2018.07.05	2018.10.15	2019.01.15	2019.01.25
대형 금융기관	18.0→17.5 (-0.5)	17.5→17.0 (-0.5)	17.0→16.0 (-1.0)	16.0→15.5 (-0.5)	15.5→14.5 (-1.0)	14.5→14.0 (-0.5)	14.0→13.5 (-0.5)
중소 금융기관	16.0→15.5 (-0.5)	15.5→15.0 (-0.5)	15.0→14.0 (-1.0)	14.0→13.5 (-0.5)	13.5→12.5 (-1.0)	12.5→12.0 (-0.5)	12.0→11.5 (-0.5)

주 : ()안은 변동폭(%p), 날짜는 시행일 기준

- ◎ 또한 맞춤형 중기유동성 지원창구인 TMLF(Targeted Medium-term Lending Facility)를 시행,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

2) OECD 경기선행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 OECD에서 작성하는 국가별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는 경우 상승추이에 있으면 확장국면, 하락추이에 있으면 하강국면으로 평가하고, 100을 하회하는 경우 하락추이에 있으면 수축국면, 상승 추이에 있으면 회복국면으로 평가

- 만기는 최대 3년까지로 기존 MLF(중기유동성지원대출) 보다 만기가 길고 금리도 3.15%로 인하

◎ 아울러 각종 감세정책, 해외직구 확대 등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을 개선하고 있음

-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인상(3,500위안→5,000위안)
- 2018년 12월, 상무부, 해관총서 등 7개 부처는 해외직구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소비 부양책 시행
  - 해외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생략, 수입세 감면, 면세 한도 : 기존 1회 2천 위안, 연간 2만 위안 → 1회 5천 위안, 연간 2만 6천 위안으로 확대
  - 적용 지역은 기존 항저우 등 15개 도시에서 북경, 심양, 남경, 무한, 서안, 하문 등 22개 도시 추가, 총 37개 도시에서 시행
  - 적용 상품의 경우 주류(와인, 맥주 등), 헬스기구 등 63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1,321개 세목 품목(HS 8단위 기준)으로 확대
-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1월 28일, 상무부, 재정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추진

〈공급 업그레이드, 소비 안정성장,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방안〉

① 자동차 소비 촉진

- 노후차량 폐차 및 교환 지원,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 지속, 농촌 차량 교환 촉진, 픽업트럭 도시 진입 제한 완화, 중고차 시장 활성화 촉진, 지방정부 자동차 관리 조치 업그레이드

② 도시 소비 공급부족 보조, 도시화 및 노령화 수요 충족

- 노후 구역 및 노인가정 맞춤형 개조, 농업이전인구의 도시 주택 소비 수요 충족, 도시 양로시설 건설, 양로서비스 공급 수준 제고 등

③ 농촌소비 체계 업그레이드, 도시와 농촌의 소비 연계발전 추진

- 농촌 온라인 구매 및 여행소비 잠재력 발굴, 도시와 농촌 쌍방향 연동 판매루트 연결, 농촌 소비시장 환경 업그레이드

④ 신제품 소비 촉진

- 에코, 스마트 가전 소비 촉진, 가전상품 세대교체, 빈곤지역의 상품 판매 지원 등

⑤ 우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 프리미엄 소비수요 충족

- 중 고급 소비 주체 형성, 디지털 소비 확대, 초고화질 상품 소비 촉진 등

⑥ 소비시장 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소비 기초시설 확충 지속, 품질 인증체계 수립 강화, 수입 분배 개혁 심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

- 북경시는 이에 맞춰 지난 1월 31일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배출감소 소비촉진 정책’을 발표, 친환경 소비재 구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보조금 지급을 시행

**< 북경시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배출감소 소비촉진 정책(2019.1.31.) >**

- 시행기간 : 2019. 2. 1 ~ 2022. 1. 31(3년)
- 대상품목(15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보일러, 전자레인지, 렌지 후드, 가정용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가정용 인덕션, 가정용 선풍기, 좌변기, 샤워기, 공기청정기, 자전거
- 보조금 지급 기준 : 각 제품별 기준에 따라 최대 800위안까지 보조금 지급, 각 소비자들은 각 상품 1개당 1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제품별 상세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상품명	지급기준	지급한도
1	텔레비전(TV)	에너지 효율 1등급 : 상품 판매가의 13% 에너지 효율 2등급 : 상품 판매가의 8%	800위안
2	냉장고		
3	세탁기		
4	에어컨		
5	보일러		
6	전자레인지		
7	렌지 후드		
8	가정용 가스레인지		
9	전기밥솥		
10	가정용 인덕션		
11	가정용 선풍기		
12	좌변기	물 효율 1~2등급: 상품 판매가의 20%	
13	샤워기	상품 판매가의 10%	
14	공기청정기		
15	자전거		

- 보조금 지급 절차 : 공모선정 된 판매처에서 관련 상품을 구입, 판매처는 구매자 정보 심사 후 관련 서류를 북경시 상무국에 제출, 소비자에게 먼저 보조금 지급
- 대상 판매처 : 하기 21개 우선 시행 판매처 외, 관련 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기업은 북경시 상무국 소비 촉진처에 신청 필요

**2019년 관련 정책 우선 시행 판매처 명단**

北京苏宁易购有限公司(북경 쉬닝)	北京家乐福商业有限公司(북경 까르푸)
小米通讯技术有限公司(샤오미)	北京京东世纪信息技术有限公司(JD)
国美电器有限公司(귀메이)	北京国美在线电子商务有限公司
百盛商业发展有限公司	北京华冠商业科技发展有限公司
北京居然之家家具建材超市有限公司	北京捷安特中商贸有限公司
北京鑫海韵通商业大楼	王府井集团北京双安商场有限责任公司
北京百安居装饰建材有限公司	北京翠微大厦股份有限公司
北京物美北京大世界商贸有限公司	北京市大中家用电器连锁销售有限公司
北京市顺义国泰商业大厦	北京市昌平新世纪商城
北京昌平阳光商厦有限公司	北京当代商城有限责任公司
北京新时代冠华商场	

---

### 03. 시사점

---

- 중국 경제는 무역,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가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절실
  - GDP 성장 둔화, 산업생산, PMI 등 각종 지표들이 경기위축을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스마트폰 등 대표적인 소비재 판매가 급감하는 등 향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
- 미중 분쟁으로 인한 대미 수출입 급감이 가시화 되는 등 여러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 속에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소비부양책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을 통한 대규모 공급확대는 중국의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 \*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기준 중국의 GDP대비 총부채 규모(비금융부문)는 253.1%로 미국(248.9%)을 넘어섰고, 비공식 부채규모까지 더하면 300% 이상인 것으로 추정
- 결국 소비부양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발굴이 필요, 기존 소비층의 수요만족 확대와 동시에 향촌(농촌) 및 중서부 지역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층 발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구매력을 갖춘 기존 소비자층의 다양해지는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프리미엄 제품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보건, 헬스 케어 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 추진 동력으로 빈곤층의 빈곤탈피, 농촌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촌 주민들의 소비력 확보 추진
    -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율(8.8%)과 소비지출 증가율(10.7%)은 도시 주민보다 빠르게 증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농림축산업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도 증가 추세
- 따라서 우리 기업은 각종 경제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중국의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이에 맞춘 지역별 소비 촉진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
  - 향후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소비 촉진 지원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성시별 관련 정책 발표에 주목,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